



‘달을 품고 있는 달콤한 모스까또 다스띠’  
**루나 모스까또 다스띠**

Luna Moscato d'Asti

지역	이탈리아 > 피에몬테 > 아스티		
포도품종	모스까또 100%		
알코올	5%	용량	750ml
시음 적정 온도	6-8°C		
테이스팅 노트	은은한 달빛이 감도는 밝고 투명한 레몬색의 모스까또 다스띠. 달달하게 잘 익은 프레쉬한 복숭아와 열대 과일의 풍성한 아로마에 세이지 노트가 더해져 더욱 향기롭다. 달콤한 와인이지만 청량한 탄산감과 상큼한 산도로 밸런스가 잘 잡혀 있고, 부담 없는 가격대와 부담 없는 알코올 도수가 파티 와인으로 제격이다.		
페어링 TIP	채소(샐러드)/ 밀가루/ 매운 음식/ 디저트/ 과일		



제품설명



미켈레 끼아를로는 60년 이상 모스까또를 생산해왔을 만큼 모스까또 다스띠에 대한 그들의 애정과 자부심은 다른 어떤 와인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이들은 지난 30년간 프리미엄 모스까또 다스띠의 선구주자로서 세계적인 명성과 성공을 거두며, 모스까또 다스띠가 더 이상 단순한 디저트 와인에서 벗어나, 일상 생활 중 언제 어디서나 즐겁고 맛있게 마실 수 있는 팔방미인 같은 와인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더욱더 많은 이들이 더 쉽게, 더 자주 즐길 수 있게 하고자 탄생시킨 와인이 바로 이 '루나' 모스까또 다스띠이다.

달빛과 같은 은은한 모스까또 원액의 컬러를 착안하여 만들어낸 제품으로, 상큼한 산도와 청량한 텍스처를 자랑한다. 또한 루나 모스까또 다스띠는 와인을 대량으로 양조하여 한번에 병입하는 것이 아니라 0 ° C 이하의 저온에 포도 원액을 신선하게 보관해둔 채, 일정 주문량만큼 생산할 수 있도록 까다롭게 관리되고 있다. 달콤하고 신선한 열대 과일 아로마에 청량한 탄산감과 부담 없는 알코올 도수로 인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대중적인 와인이다.

와이너리



1950년대부터 포도밭을 일구고 와인을 양조해 온 미켈레 끼아를로는 가야, 안티노리와 같은 그란디 마르끼의 주요 일원이다. 처음으로 이탈리아 와인을 해외로 수출하기 시작했던 1세대 수출 와이너리로서, 현재까지도 피에몬테 No.1 수출 브랜드로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바를로, 바르바레스코, 바르베라 다스띠를 통틀어 유일하게 이들의 탑 싱글 빈야드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부띠꼬 와이너리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과 가격 대비 최고의 품질로 와인 애호가들의 니즈와 입맛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프리미엄 퀄리티의 피에몬테 와인을 생산하겠다는 일념 하에 이탈리아 DOC 법이 생기기도 이전에 자체적으로 현재 법규 수준 이상의 엄격한 품질 관리를 시행해왔으며, 이탈리아에서 최초로 현대적인 양조 기술을 도입한 생산자들 중 하나이기도 하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랜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뉘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